



제 2181호 2021. 3. 7. 사순 제3주일

제1독서 : 탈출기 20,1-17 또는 20,1-3.7-8.12-17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2-25

복 음 : 요한 복음서 2,13-25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성전 정화 이야기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혹시 여러분은 한 주간 상대방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나요? 신부님은 어릴 때 ‘화’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 때 한 번 짝궁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네요. 그거 말고는 화를 낸 기억이 없습니다.

신부님이 ‘화’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낸 사건을 교회는 ‘성전 정화 이야기’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올렸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기에, 하느님께 바칠 제물을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올 때, 헌금이 아니라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용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사고파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었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잇속에 눈이 먼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이권 다툼이 심한 시장터처럼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경고를 하시고 분노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신부님, 그러면 지금은 성당에서 그런 일이 없으므로 괜찮은 건가요?”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성당에 있는 성전에서는 그러한 일은 없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어떤 자세로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있는지는 돌아보면 좋겠어요. 마땅한 찬미와 감사의 자세로 성전에서 미사를 온 마음을 바쳐 봉헌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시간만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해요.



4종로지구 세검정 성당
신동원 요셉 신부님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르셨나요?

- ① 기도하는 집 ② 장사하는 집 ③ 행복한 우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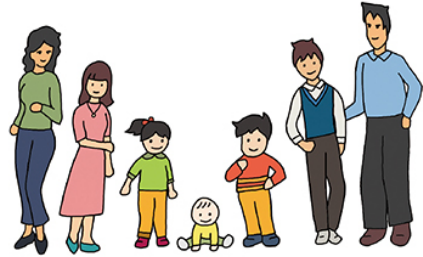
작은생명

부터 사랑하는 우리들의 약속

10.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 가장 아늑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성장은 시작되었어요. 눈, 코, 입, 팔과 다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여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던 아기는 어느새 아장아장 걸게 되고, 신나게 달리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게 되고, 해가 갈수록 키도 쑥쑥 자라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지요. 이처럼 성장과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춘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아, 아동기가 지나고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나의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지요. 갑작스런 변화가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장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용기라는 은총이 있지요. 우리는 생명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_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독서동아리 '공책'

❀ 실천사항 ❀

1. 나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고 적어보기
2. 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하기
3.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기

여러분의 '작은생명' 실천 사례를 보내 주세요.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양식: 사진, 그림, 기도문, 글 등 (기한: 2021.3.31.) 접수처: littlevita2020@naver.com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영성채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조그만 마음



잠원동 성당 6학년
심우형 다니엘

2학년 때만 해도 난 주일학교가 그냥 학원처럼 느껴졌었다. 미사 전에는 주일학교라는 생각으로 가야 하긴 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 168시간 중 1시간을 주일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니 주일에 놀 수 있는 내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때는 그냥 미사만 가고 싶었던 것 같다.

미사 전에 작은마음을 받으면 어떤 애들은 비행기를 접고, 어떤 애들은 읽다가 그냥 두고 간다. 주일학교가 끝나면 미사까지는 거의 15분 정도 남는데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성당 1층의 화장실로 간다. 만남의 방 앞에 있는 정수기 앞에도 갔다가, 딱히 할 일이 없으면 그때서야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들어가면 애들은 놀다 지쳐 작은마음을 읽고 있다. 얼마나 심심했으면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물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작은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들 매 주일마다 만화를 펼쳐보고, 그다음에는 그림을 보다가, 옆에 대충 놓고 다시 펼쳐봤다가 마지막에는 읽기로 작정한 듯 앞 페이지부터 다시 천천히 본다. 열심히 읽다 보면 좀 재미있다. 그럴 때면 나는 작은마음이 좀 짧아서 아쉽기도 했다.

나는 작은마음을 다 읽고 나면 가방에 넣는데, 그 가방에 2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했던 작은마음부터 4학년 때 어쩌다가 겨우 받은 작은마음도 가방에서 살고 있다.

나는 3학년 때부터 40일 새벽 미사를 나오고 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특별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복사를 준비하다 보니 주일학교가 학원처럼 느껴지지 않고, 의무적이 아니게 조금 더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었다. 1, 2학년 때는 진짜 숨 쉬듯 주일학교를 빠졌는데, 복사를 서기 시작하니 주일학교 가는 것이 갑자기 좋아졌다. 미사도 별로, 아니, 아예 지루하지 않았다. 신부님께서 입당하시고 1독서, 2독서, 복음, 강론만 끝나면 거의 20분이 끝나있고, 봉헌, 성찬의 전례를 한다. 종 다섯 번만 치고 나면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그러면 기다리던 성체를 모신다. 그렇게 미사의 차례를 완전히 외우고 나니 미사가 길지 않게 느껴지면서 편해졌고, 주일 미사와 성야 미사를 가다 보니 평일 미사는 정말 짧게 느껴졌다(물론 아직도 새벽 미사는 좀 힘들다...).

그렇게 미사를 열심히 참례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작은마음을 빼놓지 않고 챙겨보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와 문제였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4학년이 되니 작은마음을 받기가 힘들다. 아마 내 또래 애들은 작은마음을 이제는 잘 안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 같다. 조금 아쉽다. 아니, 많이 아쉽다. 작은마음이 없는 날에는 미사 전에 그냥 의자에 머리만 기댔 뿐이다.

나는 작은마음을 보고, 또 읽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심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읽다 보면 복음 말씀도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 미사가 중단되어서 작은마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져서 정말 아쉽다.

언젠간 다시 어린이 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